

집중취재

진짜 같은 '복제본' 버젓이 활개

베스트셀러 등 불법복제된 책 나돌아 출판사·독자들까지 피해



진품과 똑같은 복제본. 《삼국지》는 오른쪽, 《하늘이여, 땅이여》는 왼쪽의 책이 복제본이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복제된 책이 전국에 나돌고 있다. 인쇄소·제책사·배본업자 등까지 가담한 조직적 무단복제로 가뜰이나 어려운 출판사에 힘겨운 짐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를 근절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출판사들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복제된 책이 전국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지방의 한 출판 대표는 “유통망이 무너진 이후 일주일에 두 세권씩 복제품을 구입하겠느냐는 전화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화하는 모두에게 혐의를 둘 수 없지만 상당수는 무단복제를 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복제를 하거나 유통 또는 이를 사용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출판계는 저작권법의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 복제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없다고 불만이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는 지금, 힘겨운 짐을 지고 가는 출판계가 이들이 무단으로 올려놓는 복제품 아래 무릎을 꿇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무단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출판사는 (주)한국문테소리(대표 김석규)다. 공소장에 따르면, 97년 10월 중순부터 98년 1월 중순까지 정효영(해성인쇄 대표)·정길호(중앙인쇄 대표)·김영(고려산업 생산부장)·김우철(협동제책 공장장) 등이 공모해 《파카소 동화나라》 3천질(1질당 50권), 시가 10억원 상당을 무단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단복제한 책을 창고·판매책 김동님(가명) 등을 통해 우림서적(광명시)·계몽서적(종로)·대영서림(종로)·한보서적(대구) 등을 통해 각 서점에 배포했다. 무단복제 및 유통에 가담한 사람은 코팅전문가·제본업자·배본업자 등을 망라하여 40여명에 이른다. 한국문테소리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6개월에 이르는 추적전을 펼쳤다. 복제작업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

인쇄본·전자출판물 망라한 복제 기승

해냄출판사(대표 송영석)의 《하늘이여 땅이여》도 무단복제, 유통됐다. 이 책이 발매된 지 석달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진입할 정도로 붐이 일자 장중익(전 출판업자) 외 1인이 무단복제해 경북서적(대구)에 900질(1,800부)을 489만6천원에 판매했다. 해냄출판사 영업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복제한 양은 3천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40%에 복제물을 구입한 경북서적은 신암서점 등 5군데에 55% 가격에 공급했다. 범죄

구도를 보면, 장씨를 중심으로 민병태(서공문화사 대표)·표지인쇄업자·내지인쇄업자·유통업자·지역도매상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해냄측은 “한 업체의 체보로 4개월에 걸친 추적끝에 겨우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음사(대표 박맹호) 역시 피해 당사자. 이문열의 《삼국지》가 봄부터 무단복제되어 유통됐다. 6월쯤 한 서점으로부터 체보를 받아 조사를 시작, 동대문에 있는 유통업체 창고에서 복제본 600질이 쌓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그러나 복제업자는 적발하지 못해 아직도 불씨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전자출판물을 만들고 있는 서울시스템(회장 이용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입장이다. 4년 동안 50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투자하여 만든 《조선왕조실록》과 《고종순종실록》 정본 가격은 600~200만원. 그러나 무단복제품은 점조직망에 의해 단돈 4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복사물은 학계·언론사, 심지어 출판사에까지 유통되고 있다. 김현 상무는 “정본의 20배에 이르는 복사본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ㄱ출판사, ㄴ출판사, ㄷ출판사의 이동물과 학습지가 무단복제되었으며, ㄷ출판사의 전집류, ㄹ출판사·ㄷ출판사·또다른 ㄷ출판사의 단행본이 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출판사들은 적발하기까지 수고와 출판사 이미지를 고려해 포기하고 말았다.

복제된 책은 점조직망에 의해 전국으로

배포된다. 한국문테소리는 서점을 통해 책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그것도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팔린 책의 대부분은 복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단행본 역시 할인판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의 55%에 구입한 책을, 그것도 복제품인 것을 알고 있는 서점이 정가에 판매할 까닭이 없다. ‘번개볼에 콩 구워먹듯 해치운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민음사 박근섭 상무는 “실제 어느 정도 복제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매출이 1/3가량 뚝 떨어졌다. 이 중에 상당수는 할인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점조직망에 의해 전국 배포

인쇄·전자출판물을 망라한 복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 법적 제재를 가하려면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 제98조 ‘권리와 침해죄’ 조항에 따르면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특허법,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업자에게 이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도 까탈스런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출판사 스스로 적발해야 한다. 또한 그 정황증거를 모두 갖춰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가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라, 이를 적

출판인들 수상 소식 풍성

간행물윤리상 대상에 한만년씨, 문화훈장에 정인철씨 외



·창고에서 확인된
(주)한국몬테소리의 복제본
〈피카소 동화나라〉(위).
·불법복제 비디오 공장
내부(아래).



각종 상을 수상한 출판인들. 왼쪽부터 한만년·임인규·정인철·김혜경씨.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요건을 갖춰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능동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지 않는다.

한국몬테소리 이하세 차장은 “저작권법은 친고죄 성격이기 때문에 고소해도 공소기간 중에 합의 또는 다른 사유로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검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음사 박근섭 상무는 “현재의 법규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다. 좀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복제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던 한국몬테소리측은 저작권법이 아닌 ‘상표법’을 적용해 40여명을 입건시켰다. ‘상표법’을 적용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의 경우 저작권법으로 복제업자를 4개월 정도 구속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복사물의 근절을 막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복제업자가 누구보다도 출판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제업자 대부분은 출판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이다. 해남 출판사 이승우 영업부장은 “복제업자는 누구보다 출판계의 핫점을 잘 알고 있다. 더욱 이들이 점조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복제품 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부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학계·언론사, 심지어 출판사까지 무차별로 도용하고 있다. 김현 상무는 “일반 사용자는 고사하고 지각 있는 학계 등에서조차 복제품 사용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복제본인 것을 알고 구입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모르고 샀다면 독자들 또한 피해자다. 아무래도 인쇄상태가 흐릿해 오랜 시간 읽으면 금세 눈이 피로해진다. 일단 표지나 본문 활자가 선명하지 않은 책이 할인 가격에 팔리고 있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복제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출판물 복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출판계를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출판평론가 이중환씨는 “유통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복제를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출판진흥과 이경훈 사무관은 “복제품 사용이 불법임을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으며, 저작권 무단 도용에 따른 처벌 조항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규강화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는 또다른 곳에 있다. 앞으로 전자출판물이 일반화 되면 복제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다. — 오완진 기자

문화산업의 일선에 선 출판인의 각종 수상소식으로 가을이 한층 풍성하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회 간행물윤리상 시상식을 갖고, 한만년 대표(일조각)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출판부문은 장세우 대표(대원사)가 수상.

문화부(장관 신낙균)는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20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문화훈장을 서훈했다. 출판인으로는 정인철 회장(한국프론티어)이 문화훈장 화관을 받았다.

임인규 대표(동화출판사)는 지난 28일 ‘시민의 날’을 맞아 서울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신문출판사 출판부문을 수상했다. 김혜경 대표(푸른숲)는 10월의 중소기업인 상을 받았다. 김대표는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정축소로 파본율을 2%에서 0.5%로 낮추는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한국잡지협회(회장 허광수)는 제33회 ‘잡지의 날’ 정부포상 및 32회 ‘잡지 언론상’을 수여했다. 잡지 유공 대통령 표창은 박중현 발행인(월간 아동문예)이 받았다.

‘출협’ 청소년 도서 선정목록 발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98년도 3/4분기 이달의 청소년 도서’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도서목록은 ▲종교·철학 《나무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조정옥, 철학과현실사), 《감정과 이성》(리처드 래저러스외, 문예출판사), 《너 자신을 알라(만화로 읽는 철학I)》(조중상, 서광사), ▲인문사회

《우리 아이 큰사람 만들기》(함중환, 미래문화사), 《힘든 침대, 어떻게 잘 넘길까?》(전정재, 시공사), ▲과학·기술 《떠도는 생태학》(이도원, 범양사), 《프로야구 왜? 나무 방망이 쓰나》(진정일, 동아일보사), ▲문학·예술 《고전 읽기의 즐거움》(박지원외, 숲), 《서양미술사 속에는 서양미술이 있다》(박우찬, 재원), 《신 그리스 신화 1·2》(미하엘 쾰마이어, 현암사), 《세계의 지성 28인의 편지》(리브 올만, 작가정신), 《잡초는 없다》(윤구병, 보리), 《고교생이 알아야 할 동서고전(동양문학)》(구인환, 신원문화사), ▲역사 《스파르타 교육과 시민생활》(허승일, 삼영사), 《장강일기》(정정화, 학민사) 등이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설명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정기영)은 10월 15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배정 발행처 설명회’를 가졌다. 최건수(교보문고 해외영업부)씨가 <ISBN을 이용한 POS 시스템 구축과 활용>, 김옥길(국립중앙도서관 사서)씨가 <ISBN 오용사례 실태조사를 통한 국제표준도서번호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했다.

일본대사관 출판관련 지원

일본대사관은 출판과 관련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가운데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도서에 지원하는 ‘출판원조’와 같은 분야의 도서번역에 지원하는 ‘번역원조’. 12월 1일까지 대사관 공보문화원(765-3011)에서 접수.